

SW수업 교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군자초 SW교실

군자초등학교에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스터스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단기방학인 5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베트남 하노이의 국제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SW 또래멘토링 수업을 진행하였다. 군자초등학교의 교사 뿐 아니라 4~6학년 중 희망하는 학생 10명과 학부모 4명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함께

참여한 10명의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SW수업을 받았으며, 본인들이 직접 만든 피지컬 SW수업 프로그램을 하노이 국제학교 친구들에게 가르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또래멘토링을 진행한 김은우 학생은 베트남에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SW수업을 진행하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자신감이 부족했는데 두려움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군자초등학교는 지난 1월 베트남 하노이 국제학교와 자매학교 협약을 하였으며, 1월5일~9일 하노이 국제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sw연수를 진행하였다. 언



플러그드, EPL 뿐 아니라 알버트, 오조봇 등 로봇과 함께하는 SW수업을 진행하여 하노이 국제학교 교사들은 한국의 교육흐름을 체감하고 SW수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인바 있다. 연수에 함께한 강영아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의미 있었고 자신들이 만든 DIY자료를 가지고 하노이 국제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함께 수업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군자초 장석영 교장은 앞으로 베트남의 하노이 뿐 아니라 군자초의 SW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번 한국-베트남 교류행사는 우리나라의 SW교육이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자초등학교의 SW교육 또한 빛을 바라는 순간이었다.



교류행사에 참여한 김선숙 학부모님은 SW수업으로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게임이나 놀이하듯 금방 친해 질 수 있었고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수업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소외지역이었던 군자동에서 자발적인 학교의 노력으로 정보거점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국제교류행사를 통해 세계화시대에 어울리는 국제 교류활동으로 지구촌 친구들과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

하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담당자 : 군자초등학교 교사 000